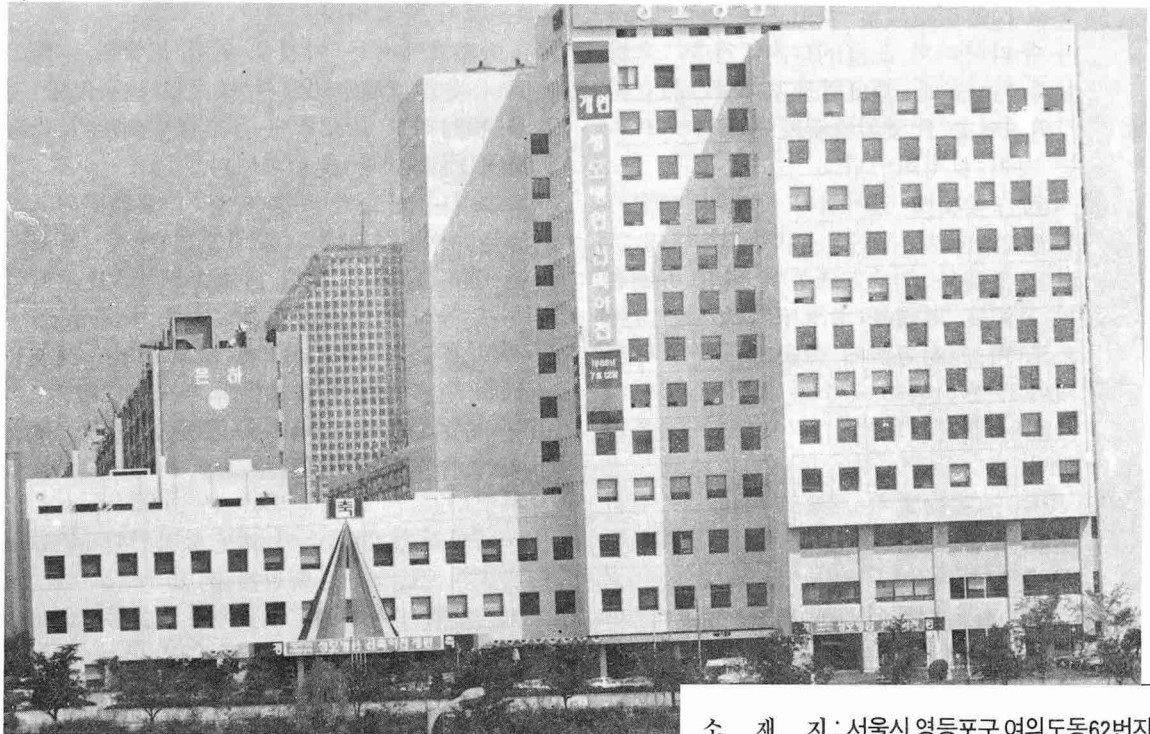


가톨릭의대 산업의학센터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찾아서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62번지
 소장: 이승환
 연구소장: 이광목
 산재진료부장: 윤임중

I. 개요 및 연혁

가톨릭 산업의학센터는 그 전신인 산업의학연구소라는 명칭으로 1962년 9월 10일에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 명동에 있는 가톨릭대학 의학부내에 설립되었다.

근로자들을 업무상 상병으로 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켜 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도모한다는데 설립취지를 둔 본 연구소는 가톨릭정신에 입각하여 산업장에서 일어나는 직업병의 진료기준과 조기발견의

기술적 방법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여 왔다.

산업의학연구소의 첫 사업으로는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상동광업소의 작업환경 조사와 근로자들의 적성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최초의 보고서로서는 「한국광업제련공사 장항제련소 유해작업환경 조사보고서」가 1962년 11월에 발표되었다.

이듬해인 1963년에는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당시 보사부의 후원과 대한 결핵협회의 협조로 1773개소 공장의 안전보건관

리실태, 작업환경조사와 여기에 근무하는 148,358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근로자들의 일반병 및 직업병조사이었고 사업장의 보건실태에 관한 첫 보고서이었다.

1965년 명동성모병원 1층에 직업병클리닉을 개설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진단, 장해도검사, 진료업무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에도 서독과 건강부와 간호원의 건강진단을 비롯해서 월남에 취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도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Body plethysmography를 위시하여 심폐기능의 종합적인 검사장비 등 최신연구 및 검사장비를 도입하였으며 많은 연구진들이 보강되었다.

이러한 업적들로 인하여 서독의 Misereor 재단과 일본의 OTCA의 원조로 1971년 저동에 건물을 신축하고 산업의학센터로 개칭하고 그 산하에 산업의학연구소와 산업재해병원을 두어 그 면모를 쇄신하기에 이르렀다.

200여 병상을 갖춘 산업재해병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진 산업재해 환자를 관리하는 병원이었고 또 유일한 진폐증 진단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었다. 1973년 그간의 연구업적과 활동이 인정되어 WHO의 서태평양지구 산업의학 공동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매년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

1986년 7월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센터가 이전되면서 산업재해환자와 진폐증, 연중독, 벤젠중독, 크롬중독 등을 비롯한 각종 직업병환자만을 다루던 산업재해병원이 산재진료부로 개칭되었으며 그동안 예방의학교실에 위치하고 있던 산업의학연구소가 새로 실험연구실을 갖추어 여의도로 이전하였다.

II. 산업보건사업

●연구

본 센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연구분야이다. 본 센터 창설 당시의 연구는 주로 산업현장에 관한 것이어서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질병이병율에 관한 연구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 후 점차 새로운 연구용기재들이 도입되고 넓은 실험실이 확보됨과 동시에 연구인원이 보충되므로써 공업중독에 관한 실험적연구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까지 외국의 자료에 의존하여 왔던 혈중, 뇨중 연농도라든지 대사산물 등 정상인의 값을 정하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외에 한국정상인의 기도저항을 비롯한 생리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었다.

이 외에 노동부와 과학기술처와의 용역연구로서 직업성질환의 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사업장 생산성저해인자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의 산업재해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실제로 노동행정 또는 산업재해예방에 공헌하는 업적을 내어 놓았다. 그 중에서도 본 센터에서 주력하여 온 연구는 진폐증에 관한 연구와 연중독에 관한 연구로서 1968년 이후 매년 이 부분에서만도 2~3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왔다.

한편 연중독에 관한 연구는 연구소에서 실시한 장항제련소의 작업환경과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많은 연중독환자가 발견된 것이 계기가 되어 1968~1970년까지 연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독발생에 관한 조사연구가 진행되었었고 그 후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었다.

최근에 발표된 주요 업적으로는 제조업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적분석, 연중독과 Zinc Protoporphyrin과의 관계, 카드뮴중독과 신장기능에 관한 연구, 탄광의 채탄부의 진폐증 유병율에 관한 연구 등을 들수 있으며 여성근로자의 직업성질환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 사업장 작업환경조사

1962년 부터 광산의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를 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 약 3,000건에 달하는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산업의학연구소 환경위생과는 원자흡광광도계,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적외선 분석기, 포라로그래피 및 각종 유해물질의 포집 및 분석에 이용되는 기구 등 거의 완벽한 환경조사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전임교수 및 연구원 등 7명이 이 분야를 이끌어 가고 있다.

본 센터에서 처음으로 환경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2단계로 구분하여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된 내용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치 산출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개선방향까지 제시하여 주므로써 사업장 환경개선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업환경측정을 중심으로한 관리외에도 여러기관으로 부터의 유해환경에 관한 질의에 자문해 주고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해물질에 대한 측정방법 및 평가에 관하여도 계속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 건강관리

건강진단은 본 센터의 건강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입사시 건강진단, 일반및 특수건강진단, 해외파견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본 센터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으며 주력하고 있는 건강진단분야로는 유해 환경에 폭로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으로서 이로 인해 일반건강진단이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건강진단은 상

당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196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으로서 또한 대학부속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직업병을 찾아내기 위한 최신진단방법 및 진단기준 등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분진, 연을 중심으로한 중금속, 유기용제 등 유해인자 분야별로 전문교수들이 특수건강진단을 분담, 관리함으로써 깊이있고 정확한진단 및 사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83년 부터 85년 까지 3년간 성남, 여주, 이천지역의 특수건강진단을 담당하여 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본체도에 올려 놓았다.

1986년 부터는 서울 중부 및 서부지역의 특수건강진단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밀작업환경조사와 더불어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이해를 높이고저 노력하고 있다.

본 센터는 또한 연구목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비롯해서 여타 특수검진 기관들로 부터 협조의뢰가 있을 때에 이에 응하고 있다.

● 직업병 진단 및 치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진폐진단 및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많은 분진폭로 근로자들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및 치료를 계속하여 오고 있으며 연중독, 크롬중독, 벤젠중독 등 화학적, 물리적 유해인자에 의해 초래되는 직업병의 진단및 치료도 실시하고 있다.

● 교육 및 훈련

1975년 가톨릭의대와 밀접한 협조하에 산업보건의 국내 첫 대학원과정을 개설하였으며 2년간 180시간의 강의와 실습 및 연구논문작성으로 진행되는 이 산업보건학 석사과정은 산업의 및 산업보건 전문요원들에게 산

업의학 전반에 걸쳐 보다 깊이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사업장 보건관리자 및 요원들에 대한 단기훈련과정을 대한산업보건협회와 협조하에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아울러 계몽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산업의학연구소 설립이후 “한국의 산업의학”이라는 기관지를 발행 각 산업장에 무료로 배부하였으며 이 사업은 현재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

● 기타

이외에도 1972년 노동부와 보험회사로 부터 산업재해로 신체장해가 남게된 환자들의 장해도 판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에 대한 서비스와 자문에 응하고 있다.

한편 장학생 해외파견 및 외국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회를 갖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으로 산업보건 발전에 기여할 전문인력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업적요약

1. 연구 및 조사보고서	242건
2. 사업장 환경조사	2,687건
3. 위생보호구 제작 및 검사	11건
4. 보건관리자 및 요원훈련	4,369명
5. 건강진단의사에 대한 교육	5,182명
6. 근로자 정기건강진단	458,797명
7. 해외파견근로자 건강진단	8,745명명
8. 직업병 진단 및 치료	21,118명
9. 기관지 발행	93권
10. 장학생 해외파견	17명
11. 외국전문가 초빙	18명

Ⅲ. 향후 사업추진방향

앞으로 본 센터는 대학부속 전문기관으로서의 고유기능을 최대한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1. 연구기능강화

이제까지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모든 진폐 및 중금속에 관한 분야뿐 아니라 앞으로는 유기용제폭로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별 새해발생의 원인분석, 여성근로자들의 건강조사, 건강과 관련된 여러지표들의 상호관계 등 역학적 조사연구도 진행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특히 직업성 암증을 유발시키는 발암물질에 관한 연구도 관련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여러분야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교수가 책임을 맡아 각 분야를 발전시키는 전문연구제도를 정착화할 계획이다.

2. 건강진단 시스템의 전산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기 위하여는 정확한 진단기술은 물론 이려니와 개인 건강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사후대책을 강구하는데 있다.

본 센터는 이미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최신진단기기를 비롯하여 모든 건강진단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3. 교육 및 훈련내용과 제도 개발

사회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산업 의학이 발전하기 위하여서도 전문인력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본 센터는 대학원과정(산업보건학석사)등 기존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외에 산업의학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 및 단기 과정의 신설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교육 및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수정, 개선,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4. 직업병 전문진료제도 정착

직업병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며 그 원인 또한 다양하다.

직업병을 진단하기 위하여는 임상증상, 검사실소견 뿐만이 아닌 작업환경에 대한 이해, 유해인자의 특성, 작업경력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판정하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센터에서는 연구분야를 발전시키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유해인자별 진료

담당교수제를 정착시켜 근로자들이 보다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부속기관으로서 교육, 연구, 진료 3 가지 기능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아가고 동시에 지역사회 특히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피와 땀을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다 하고자 한다. *

